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성탄에 복 받는 가정(누가복음 2:1-14)

연말 특별 새벽부흥회 LA사랑의교회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가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성령의 임재와 말씀, 기도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말 특별 새벽부흥회를 연다. 이번 새벽부흥회는 "부림절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12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오전 6시에 열린다. 새벽부흥회 후에는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제공된다. 교회는 이 새벽부흥회에 앞서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작성하도록 권면하며, 3대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당부했다.

날짜별 강사는 다음과 같다.

- ▶26일(화): 김기섭 목사 ▶27일(수): 장명규 목사 (빛의교회 담임) ▶28일(목):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 담임) ▶29일(금):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 담임) ▶30일(토): 김기섭 목사

44차 정기 총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이하 연합회)는 9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목사 심상은)에서 12월 월례조찬기도회 및 제4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 이사회는 현 신용 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신용 회장은 연임 소감으로 "많은 이사님들과 중경회장단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기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 자문위원인 한기원 목사는 "순종하기 쉽습니까? 창 12:1-3"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순종은 어렵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책임지는 것이 보여지는 연합회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권면했다.

한편 연합회는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금전달식 및 OC교계단체 연합송년회를 연다.

연합회는 OC 인근지역 평신도들이 모여 함께 신앙을 다져가며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고 건강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평신도라면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연극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동심을 돌아가게 됨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homeless-people이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성탄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계 가정의 명절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축복의 가정이 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눅 2:14)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성탄절의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가정 한 가운데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될 때에,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되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



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될 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2. 어린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Christ(그리스도) + mass(천주교의 미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는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 카스파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소유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벨라이어라는 동방박사는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발타진이라는 박사는 몰약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드렸

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탄, 예배하는 성탄이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3.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

성탄절은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홀로 지낼 수 없는 성탄절에 너그러운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탄절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성탄에 평화의 왕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 김선도 목사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